

歐洲思想의 由來 (三)

第一章 끼리사 思想 (續)

저자 미상

(一) 自然生活主義 (續)

끼리사[그리스] 思想이 自然的 現實的임과 關聯하여 茲에 特히 注意할 것은 彼等の 生活을 隨하여 思想 全體가 極히 自由로 下等 不自然인 束縛을 成하지 아니함이 是이라. 古代 文明, 가령 印度 또는 埃及 等에는 嚴正한 階級制度가 存하여 生活이나 思想이 全然히 制限되고 束縛되얏스나, 是에 反하여 끼리사에는 最初로부터 此와 如한 制度가 無하얏고 또 끼리사人의 生活이 他로부터 束縛을 受함에는 너무 強烈하여 自主的이오 獨唱的임이 最初부터 彼等の 根本傾向이니, 끼리사이라는 小國에 多數 獨立의 自由 部分이 發達함도 此根本傾向이 明白히 證明되는지라. 思想上 何等 不自然인 束縛이 無하고 어대까지든 自由獨立의 精神이 膽當함이 끼리사人의 面目이라. 大體 自由가 有한 處에는 進歩가 有하고 創造가 有한 것이라. 安이라 進歩이나 創造는 오즉 自由가 存한 處에 存하는 것이니, 歷史上 新制度이나 新思想을 產出한 民族이 반다시 少하지 安이하나 끼리사人 만큼 無限한 新見과 創意가 膽當한 民族은 他에 類例를 求하기 難하니, 끼리사 文明史는 眞實로 新生活, 新制度, 新思想 創造의 歷史이라 稱하리로다.

極言하면 近代 生活에 在하여 發現되는 온갖 制度, 文物, 思想, 感情은 이것을 다 끼리사 文明 中에서 發見되나니, 快活한 自由한 不關獨立의 眞面目은 어디까지든지 끼리사人의 特徵이니라.

(二) 藝術的 特徵

그러나 끼리사 思想의 根本特徵이라 하면 가장 顯著한 意味에 在하여 藝術的이라 함이 殆히 諸批評家의 異口同音으로 主張하는 解釋이니, 實로 끼리사 民族이 가장 卓越한 意味에 在하여 藝術的임은 到底히 否定하지 못할 事

實이라. 畢竟 켄리사 民族은 그 有史時代의 最初로부터 이미 卓越한 藝術的 才幹을 具備한 稀有한 民族이니, 그 燦爛한 歷史는 專히 藝術的 才幹 發展의 歷史로도 觀察되는지라. 호마[호머]의 『아리아드[일리아드]』이나 『오딧세[오딧세이]』는 單히 호마이라는 一詩人에 製作이 안이오 實은 호마時代에 至하기까지의 全 켄리사 民族의 藝術的 發展의 結果에 不外하니, 켄리사人이 如何히 卓越한 意味에 在하여 藝術的인지는 호마, 헤시오르[헤시오도스], 에스키로스[에스킬로스], 소포크레스[소포클레스] 等 大詩人의 輩出을 爲始하여 建築, 彫刻, 繪畫 等 온갖 方面에 關하여 藝術 上의 世界的 典型을 後世에 遺存함에 據하여도 明白하나, 더욱 古代 켄리사 民族의 日常生活의 그것이 가장 顯著한 意味에 在하여 藝術的인것을 記憶하지 안이하면 안이 될지라. 彼等의 生活 그것이 徹頭徹尾 藝術的인것은 가령 古代 켄리사 歷史의 精華로 見하는 올림피아[올림피아]의 祭典 等を 想像하면 極히 朦朧은 할지라도 可히 推知하리니, 此等의 藝術的 傾向은 當初에 如何한 精神的 特徵으로부터 發生하였는가? 吾人은 만다시 켄리사人의 此根本的 特徵을 明白히 하지 안이하면 안이 될지나 此는 決코 容易한 事業이 안이라. 便宜를 爲하여 簡單히 說明하면 그는 가장 精紐微妙를 極한 象徵的 傾向이라 하리니, 象徵的 傾向이란 玆에 가장 廣博한 意味로 用하여 통히 不定한 것 茫漠한 것에 一定한 形象을 附與하는 精神作用을 意味하는 것으로, 통히 鮮명한 形象을 造出하는 所謂 造形的 才能이 卽 象徵的 傾向에 不外한 것이다. 온갖 것에 形象을 附與하여 온갖 것을 具體化하여 그것을 歷々히 鮮明하게 靈活하게 眼前에 眺望함은 一切의 藝術的 活動의 根本이니, 此와 如한 才幹을 具備한 者가 오즉 藝術的이오 또 能히 藝術家가 되는 것이다. 켄리사人이 온갖 不定한 것 茫漠한 것 無制限인 것을 厭惡함은 事實이니, 만다시 漠然한 것에는 確然한 定形을 附하고 無制限한 것에는 一定한 制限을 與하지 안이하면 休치 안이하는 것이 彼等의 特徵이오, 더욱 켄리사人은 가령 埃及이나 印度의 國俗과 如히 極히 空想的인 荒唐奇怪한 事物에 附與하는 것이 안이라. 도리어 그 正反對로 가장 適合한 規矩 整然한 形象을 與함도 著名한 事實이니, 後代의 歐洲美術이 통히 規律 整然한 形象을 取하기에 至한 것은 일즉 켄리사 藝術의 精神에 立脚한 것이다 謂하지 안이하면 안이 될지니라.

안이라 規律이 整然할 쏜 안이오 켄리사人의 象徵 傾向은 가장 精緻를 極한 것임도 記憶하여야 할지니, 卽 한갓 疎闊한 形을 事物에 附與한 것이 안이오, 가령 彫像衣裝의 一點一劃에 至하여도 가장 精緻하게 가장 綿密하게 하여 一點一線을 疎忽히 하지 안이하는 精密의 度가 그 特徵이라. 가령 에스키로스, 소포크레스 等の 劇詩들 見하건대 後代의 詩人을 瞠若케 하도록의

가장 綿密한 記述, 描寫, 觀察 등이 全幅에 充溢하니 後世 歐洲의 藝術이 極히 精緻한 情味를 具備하기에 至함은 此亦 씨리사 傳來의 賜物이라 謂할지니라.